**3.1운동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선언서**

우리는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이며, 수많은 청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선언합니다. 일백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땅, 내 나라의 흙 위에서 살아갈 권리를 얻은 우리는 열사들의 선혈이 흐르고, 오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땅에서 또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까요? 갈등과 분열,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역사의 화폭 위에서 한 세기가 흘러갔음에, 새로운 시작의 초석위에서 우리 청년들은 한 걸음 더 진일보하고자 합니다.

원한과 분노의 연대기를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차별과 억압의 현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를 힐난하고 헐뜯는 일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를 해묵은 갈등의 연장으로 이끌 뿐입니다. 마음의 칼날을 쥐고 평등과 공정의 선을 세우며, 자주적 행보를 통해 청년만의 길을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진리는 우리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성의 뜻을 민족계몽의 길이라 여겼던 과거 선조들의 자취를 따라 미래를 향한다면 향후 100년의 등불을 밝게 비추는 일이

될 터, 부패와 적폐에 분노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룩진 역사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광명과 함께합시다. 과거의 일백년은 미래향방의 단서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일백년은 과거 시대정신의 숭고한 계승을 추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주적이란 무엇이며,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자주적이며,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일 없이 독립해 있는 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적 독립이란 단연 민족 강탈의 역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곧 자주적 독립입니다.

청년은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며, 불만을 터뜨리는 열광의 횃불입니다. 부조리함이 있다면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새롭게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여야 합니다. 청년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자주적 독립을 위해 빛을 쫓겠습니다.

2019. 3. 23

김동훈